

주주총회소집공고

2013년 3월 7일

회 사 명 : 세종공업(주)
 대 표 이 사 : 한 상 준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00-1
 (전 화) 052) 219 - 1556
 (홈페이지)http://www.sjk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배 효 성
 (전 화) 031) 219 - 981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7기 정기)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을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1회	2012.02.16	제36기(2011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회	2012.03.08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등
3회	2012.03.15	제36기 연결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등
4회	2012.04.10	세종(중국)연구소 법인설립의 건
5회	2012.05.08	중국 현지법인 무상증자(이익잉여금 처분 자본전입) 결의의 건
6회	2012.05.22	사장 선임의 건
7회	2012.06.12	중국 북경 현지법인 차입관련 지급보증의 건
8회	2012.08.08	자사주 신탁계약 연장의 건
9회	2012.08.27	한국수출입은행 회전한도방식 중기포괄수출금융 차입건
10회	2012.09.10	러시아 세종루스 차입관련 연대입보의 건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2	2,000,000	58,500	29,250	

※ 기타 참고사항

주총승인금액은 사내 등기이사 총보수 한도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 세 정 (관계회사)	매출	2012.01.01 ~ 2012.12.31	2,104,676	0.5
	매입		7,691,527	1.7
중국북경세종 (자 회사)	매출		28,385,472	6.1
	매입		15,249	0.0003
중국영성세종 (자 회사)	매출		18,582,137	4.0
	매입		72,942	0.016
미국세종알라바마 (손자회사)	매출		43,661,101	9.5
미국세종조지아 (손자회사)	매출		41,720,584	9.0
세종체코 (자 회사)	매출		31,706,568	6.9
	매입		27,735	0.01
세종슬로바키아 (자 회사)	매출		56,695,526	12.3
세종루스 (자 회사)	매출		14,033,723	3.0
(주)세 움 (자 회사)	매출		72,911	0.02
	매입		455,933	0.1

※상기 비율 산출기준은 2012년도 매출총액(461,709,027천원)대비 차지하는 비율로 작성되었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산업은 거대한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자동차제조에는 철강, 화학, 전기 등의 산업과 2만여개의 부품을 제조하는 부품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당사의 제품은 자동차의 환경유해배기가스를 정화하고 소음진동을 줄이는 부품인 머플러와 컨버터로 구성된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 및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경기변동, 신차개발등의 기호변화에 민감함으로 끊임없는 기술인프라 구축의 투자와 신개발제품으로 구매만족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자동차 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을 발판으로 내수 및 수출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00년 이후 완성차 생산 300만대 시대를 열었다.

2008년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잔업축소, 공장휴무 등 생산조정으로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한 3,826,682대를 기록하였다. 내수판매는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업계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신용경색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한 1,154,392대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 유럽, 중남미 시장의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한 2,685,096대를 기록하였다. 2009년도 생산대수는 내수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8.2% 감소한 3,512,926대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내수판매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YF쏘나타, 투싼ix, 신형마티즈, New SM3, K7 등 신차효과, 노후차 교체 지원정책 등으로 1,394,000대로 전년동기대비 20.7%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수출은 미국,동유럽 시장의 수요침체에 따라 2,148,862대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9.9% 감소하였다.

2010년도 1~12월까지의 생산은 내수 및 수출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1.6%증가한 4,271,741대를 기록하였으며, 내수판매는 1,465,430대로 전년 동기비 5.1% 증가하였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 신흥국 등의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증가와 국산차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9.0% 증가한 2,771,482대를 기록하였다.

2011년도 12월 생산은 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증가로 전년동월비 7.0% 증가한 424,981대를 기록하였고, 2011년 연간 생산은 전년비 9.0% 증가한 4,656,762대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2월 내수는 자동차업체의 연말 판촉강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비 5.4% 감소한 130,004대로 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세를 기록하였지만 2011년 연간 내수는 전년비 0.6% 증가한 1,474,552대를 기록하였다.

2011년 12월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제품

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전략차종 투입확대, 한·EU FTA 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16.2% 증가한 301,639대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연간 수출은 전년비 13.7% 증가한 3,151,930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2년도 12월 생산은 수출 감소와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한 402,135대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연간 생산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4,558,160대이다. 2012년 12월 내수판매는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선수요와 업계의 판촉 활동 강화, 신타페, K3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136,328대로 2012년도 월별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고, 2012년 연간 내수 실적은 전년대비 4.3% 감소한 1,410,857대에 그쳤다.

2012년 12월 수출은 국산차의 제품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고연비 소형차 선호도 증가등에도 불구하고, EU시장 위축과 조업일수 축소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한 270,336대를 기록하였고, 2012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3,165,689대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3년 국내시장 환경은 하이브리드차의 세제 감면 기간연장과 고연비차에 대한 세제지원 및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의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 가계부채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실현 시 부채 상환에 따라 고가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공급 측면에서도 판매를 견인할 볼륨모델의 신차 출시가 2012년에 이어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 신차 효과로 인한 수요 증대는 제한적으로 예상되어, 2013년 국내 판매는 전년비 1.0% 감소한 153만대로 전망된다. 2013년 수출은 국내업체의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지속되는 등 제품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미, 한-EU FTA 발효로 해당 지역 수출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제고도 긍정적인 요인에 따라 전년비 1.2% 증가한 331만대가 될 전망이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신흥시장의 확대와 현지업체들의 급부상, 글로벌 업체들의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생산기반 확대경쟁, 친환경차 및 저가차 개발경쟁, FTA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확대 등 국내외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로 인하여 경쟁지역의 초점이 북미·서유럽 등 성숙시장에서 신흥시장과 국내시장으로 이동되고 주요 경쟁대상 업체도 미국·유럽·일본계 글로벌 업체에서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현지업체와 현지진출글로벌 업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써 국내와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생산·판매기반 구축뿐 아니라 범지구적 차원의 개발·생산·판매·조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경쟁의 핵심요소도 양산차종외에 친환경차·저가차 개발능력과 원가경쟁력 강화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대표적인 내구재 산업으로서 경기 호황시에는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수요 증가와 고급화 경향을 띄는 반면, 경기 침체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구매력 감소와 경차 구입 등 경제성을 위주한 구매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우리 자동차업체들의 대응전략도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내외부적인 환경변화에 적극대처하여 나가야 한다.

(4) 경쟁요소

자동차 산업의 경쟁요소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코스트 절감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요소는 제품력과, 마케팅력, 코스트 경쟁력을 들 수 있다. 제품력은 성능, 안전성, 디자인, 품질, 신기술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 줌으로써 경쟁우위를 기할 수 있게 해준다. 코스트 경쟁력은 신제품 개발비용, 양산차 제조생산성, 간접인력의 생산성, 금융비용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비용개념으로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세가지 경쟁요소는 산업환경의 변동에 따라 강조점이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제 호황기에는 제품력을 위주로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반면, 경제 침체기에는 코스트 경쟁력과 마케팅력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보전하려는 경쟁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자동차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체와 강한 수직계열 관계의 형성과 전문부품 업체(1차 협력업체 약1,200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기계,전기,전자,금속 등의 전 제조업과 관련이 있어, 원활한 자원조달의 중요성이 타 업종보다 한층 더 중요한 특성이 있다. 이를 위해 당사의 경우 자동차부품의 주요 원자재인 철강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핵심부품인 컨버터 축매류 또한 현대자동차로부터 조달, 생산 조립하여 완성차업체가 요구하는 부품 모듈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동업종은 환경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있는 부품으로 배기가스 정화규제, 소음규제등 환경친화적 부품이 요구되어진다. 자동차 신차의 배기가스정화장치 및 소음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및 완성차업체의 성능시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완성차가 출고하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검사 기관으로 부터 각종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종공업(주)는 환경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규격의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을 획득(2004.11)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사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제품설계 및 개발시 사용하는 모든 물질, 운송절차 등에 대한 LCA(Life Cycle Assessment : 전과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LCA는 제품개발의 전과정에 걸쳐 사용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정량화 한 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개선하는 방식이며,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품공급 시에도 환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2010년도중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의 인증을 취득하였고, 기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과의 통합

작업을 통한 환경, 안전, 보건 통합 시스템인 ESH(Enviroment & Safety, Health)를 구축하였다.

한편, 세계 각국의 자동차 관련 법규는 각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안전에 관한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4년부터는 Tier I(연방규제) LEV I(캘리포니아 규제) 보다 더욱 강화된 Tier II, LEV II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1992년(경유차의 경우 1994년)에 EU RO I 이 도입된 이래 2005년에 EURO IV가 시행되면서 가솔린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는 약 1/3 이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은 약 1/5, 디젤 차량의 입자상물질은 1/6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차량 연비 개선 및 온실 가스 감축 규제 등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EURO V의 경우는 EURO IV의 기준대비 미립자 기준은 80%강화되었으며, 질소산화물(NOx)기준은 20%강화 되었다. 당초 제안보다 9개월 앞당겨져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EURO VI의 경우 EURO V 기준보다 미립자는 66%, 질소산화물은 80% 줄어야 하며, NOx의 배출량은 유로 5보다 80% 줄어든 0.4g/kWh, 미립자는 0.01 g/kWh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당사 연구소에서는 환경핵심부품 개발 기술력 및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개발 능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린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설립이후 자동차소음기(MUFFLER), 배기가스정화기(C/CONVERTER) 및 차체부품(PRESS품)을 설계, 제작, 판매하는데 있어 품질 및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기술개발 확립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는 차체부품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자동차용소음기와 배기가스정화기 부문의 기술력 우위의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인 제품 개발연구를 위해 95년 4월에는 기술연구소를 신축, 준공하였으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품질혁신으로 100PPM 품질인정 및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2000년5월에는 QS9000 인증을 획득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선진 자동차 기업의 본격적인 세계화 추세에 따라 2002년 9월에는 선진 외국기업의 기술도입을 위해 기술제휴를 하는 등 다각적인 선진기술 전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02년 7월은 글로벌 회사로서의 입지 구축에 발판을 마련하는 중국 영성 공장을 설립하였고, 동년10월에는 중국 북경 공장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엔 미국의 알라바마 합작 공장이 완공되어 2005년부터 양산이 개시되고 있어 당사는 국내자동차산업의 세계화에 선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체코 및 슬로바키아에 2006년 회사를 설립하여 양산중에 있으며, 2008년 미국 조지아와 러시아에도 법인을 설립하였다. 국내의 관계회사로는 상용차의 소음기 부품 생산을 위해 전북 정읍에 자회사(이앤이텍(주))를 설립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양산 중에 있으며 2009년 신사업인 바이오산업 진출을 위하여 (주)세종바이오테크놀로지를 설립하였다. 2010년도 중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의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지속적인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2011년도에는 중국 자동차시장 Marketshare확보를 위해 북경세종의 자회사인 태창세종을 설립하였으며, 11년 9월에 세종그룹 수원 본 사 설립으로 글로벌 관리에 따른 효율을 더욱 도모하게 되었다. 2012년 4월중에는 중국 상해에 세종(중국) 기차배건기술연발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연구개발 기술력 보유로 중국 자동차 시장의 개척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당사의 공시대상 사업부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1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품목은 자동차용 소음기(MUFFLER), 배기가스정화기(C/CONVERTER) 및 기타차체부품(PRESS품)이며, 당사의 2012년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 별도기준)은 전기대비 5.72% 증가한 461,709,027,121원을 기록하오 며,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89.5% 감소한 674,530,656원, 세후순이익은 49.66% 감소한 15,331,963,355원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시장의 양대축인 미국 및 유럽의 긴축경제와 환율하락 뿐만 아니라 포화 상태에 이른 내수 시장과 함께 원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저조한 실적이 나타났다.

(2)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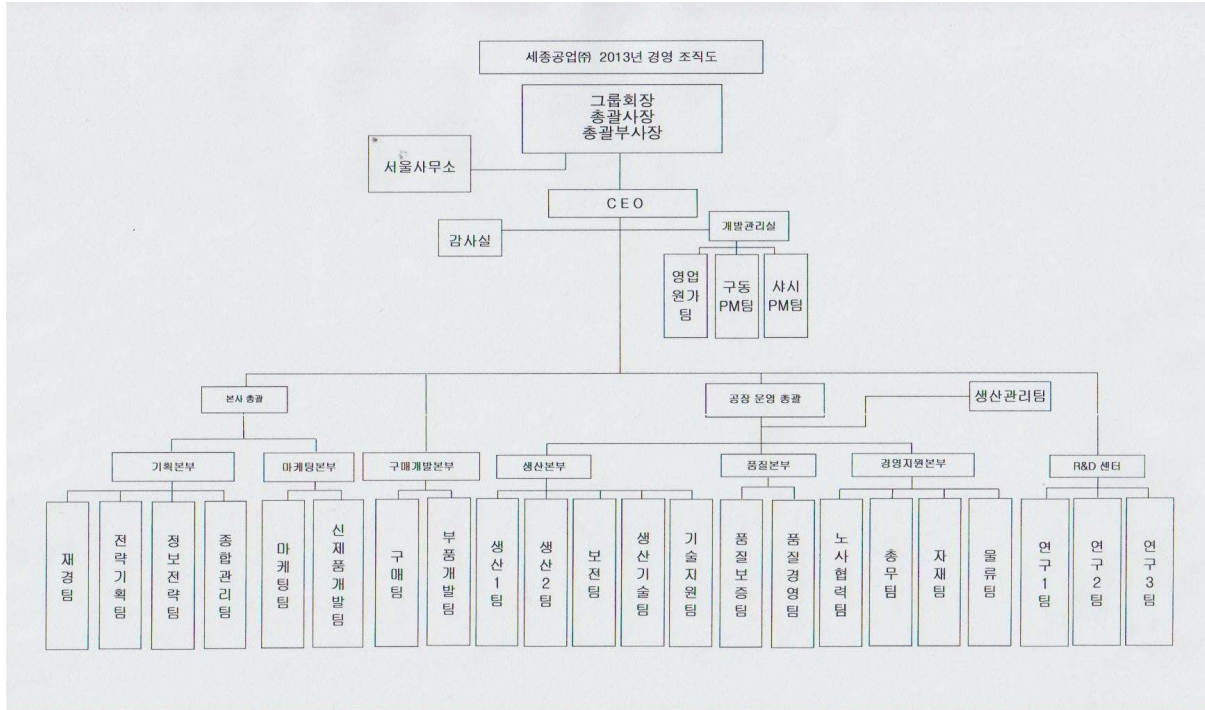
자동차 시장에서의 업체별 내수시장 점유율은 현대(47.3%), 기아(34.2%), GM대우(10.3%), 르노삼성(4.2%), 쌍용(3.4%)순으로 당사의 제품은 현대, 기아자동차 납품이므로 현대자동차의 국내점유율 중 당사의 납품비중으로 적용하면 약31%의 시장점유율이 나타난다.

(3) 시장의 특성

자동차 시장은 크게 브랜드메이커와 최종소비자로 구성되는 B2C 시장과 브랜드메이커와 OEM부품전문업체로 구성되는 B2B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사는 이 중 B2B 시장의 선발주자로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장에서 후발 경쟁업체로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우신공업, 대기포레시아 등이 있으나, 이들 업체는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흡수·합병됨에 따라 발생한 당사의 경쟁업체이다.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상 완성차업체의 신차종,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기술적 대응, 원가절감으로의 가격경쟁력제고가 필수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는 품질과 기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여 신차 개발설계단계에서부터 시스템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KNOW-HOW를 갖추고 현대자동차의

신차종 개발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당사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현재 여러 완성차 업계에서 납품 관련 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당사는 마케팅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 조직도



2013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12년 당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5.72%증가한 4,617억원을 실현하였지만 소비심리위축과 원화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및 원가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6.7억, 당기순이익은 15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89.5%와 49.66% 하락하였습니다. 당사 2013년도 매출액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면에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7 기 2012. 12. 31 현재

제 36 기 2011.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7 기	제 36 기
자 산		
I. 유동자산	221,212,035,149	227,908,771,001
1. 현금및현금성자산	41,255,620,463	13,016,952,387
2. 단기금융상품	9,457,332,265	28,673,947,104
3. 매출채권	122,663,186,355	134,540,674,578
4. 기타채권	22,664,508,896	25,201,809,699
5. 기타금융자산	62,473,705	197,639,239
6. 재고자산	24,117,998,475	25,035,642,070
7. 기타자산	990,914,990	1,242,105,924
II. 비유동자산	189,168,160,765	173,838,905,987
1. 장기금융상품	1,500,000	1,500,000
2. 기타채권	3,913,836,650	5,866,723,450
3. 기타금융자산	17,504,436,665	16,039,357,493
4. 유형자산	91,690,286,932	84,202,658,516
5. 무형자산	7,047,892,747	4,319,472,557
6. 종속기업투자	66,837,070,437	62,272,601,205
7. 이연법인세자산	2,173,137,334	1,136,592,766
자 산 총 계	410,380,195,914	401,747,676,988
부 채		
I. 유동부채	137,003,098,290	141,560,909,568
1. 매입채무	60,824,367,941	54,698,004,711
2. 기타채무	12,531,742,904	10,838,055,390
3. 단기차입금	56,236,096,080	66,711,918,782
4. 유동성장기부채	2,070,605,630	2,065,021,610
5. 당기법인세부채	1,761,162,680	3,704,373,100
6. 총당부채	682,672,239	535,541,180
7. 기타금융부채	700,774,120	132,127,251

과목	제 37 기	제 36 기
8. 기타부채	2,195,676,696	2,875,867,544
II. 비유동부채	21,720,510,980	19,446,360,648
1. 기타채무	1,813,621,176	2,130,718,635
2. 장기차입금	3,250,427,060	5,321,032,690
3. 퇴직급여채무	11,167,750,100	7,284,926,589
4. 총당부채	4,340,043,923	4,152,603,612
5. 기타금융부채	1,148,668,721	557,079,122
6. 이연법인세부채	-	-
부 채 총 계	158,723,609,270	161,007,270,216
자 본		
1. 자본금	10,027,215,000	10,027,215,000
2. 기타불입자본	2,237,091,320	2,237,091,320
3. 기타자본구성요소	1,181,342,992	(1,027,472,552)
4. 이익잉여금	238,210,937,332	229,503,573,004
자 본 총 계	251,656,586,644	240,740,406,77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10,380,195,914	401,747,676,988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3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36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37 기	제 36 기
I. 매출액	461,709,027,121	436,724,861,537
II. 매출원가	394,131,776,332	373,020,234,058
III. 매출총이익	67,577,250,789	63,704,627,479
1. 판매비	17,365,066,494	13,700,434,172
2. 관리비	49,537,653,639	43,579,827,457
IV. 영업이익	674,530,656	6,424,365,850
1. 기타수익	27,925,091,641	31,172,660,199
2. 기타비용	11,786,538,969	6,690,175,923
3. 금융수익	5,251,926,256	9,689,983,633
4. 금융비용	3,763,251,501	5,212,502,023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301,758,083	35,384,331,736
1. 법인세비용	2,969,794,728	4,926,164,669
VI. 당기순이익	15,331,963,355	30,458,167,067
VII. 기타포괄이익	63,215,017	(9,671,304,410)

과목	제 37 기	제 36 기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2,208,815,544	(6,740,370,390)
2. 보험수리적손실	(2,145,600,527)	(2,930,934,020)
VIII. 총 포괄이익	15,395,178,372	20,786,862,657
IX.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770원	1,521원
2. 희석주당이익	770원	1,521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36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37 기	제 36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8,740,155,660	29,532,791,33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553,792,832	2,005,558,285
2. 보험수리적손실	(2,145,600,527)	(2,930,934,020)
3. 당기순이익	15,331,963,355	30,458,167,067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1,000,000,000	500,000,00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000,000,000	500,000,00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14,587,865,800	24,478,998,50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000,000,000	2,000,000,000
2. 임의적립금	10,000,000,000	18,000,000,000
3. 배당금	2,587,865,800	4,478,998,500
(주당현금배당금(율))		
(제37기: 130원(26%))		
제36기: 225원(45%))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152,289,860	5,553,792,832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3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36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2011. 1. 1	10,027,215,000	4,234,699,360	5,712,897,838	20
연차배당	-	-	-	(4
자기주식의 취득	-	(1,997,608,04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6,740,370,390)	
보험수리적손실	-	-	-	(1
당기순이익	-	-	-	3
2011. 12. 31	10,027,215,000	2,237,091,320	(1,027,472,552)	22
2012. 1. 1	10,027,215,000	2,237,091,320	(1,027,472,552)	22
연차배당	-	-	-	(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2,208,815,544	
보험수리적손실	-	-	-	(1
당기순이익	-	-	-	1
2012. 12. 31	10,027,215,000	2,237,091,320	1,181,342,992	23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3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36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7 기	제 36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9,667,435,007	3,703,346,269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54,788,536,271	4,511,627,276
(1) 당기순이익	15,331,963,355	30,458,167,067
(2) 조정	26,145,263,427	15,536,002,070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3,311,308,489	(41,482,541,861)
2. 이자의 수취	2,219,023,617	1,328,538,259
3. 이자의 지급	(1,741,074,488)	(1,646,844,878)
4. 배당금의 수취	368,329,200	5,274,008,652
5. 법인세의 지급	(5,967,379,593)	(5,763,983,04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89,576,212)	(60,837,381,50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6,488,016,874	30,824,278,174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7,503,202,484	17,990,962,17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100,756,000	4,880,550,000
유형자산의 처분	6,884,058,390	7,952,766,002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1,677,593,086)	(91,661,659,678)

과 목	제 37 기	제 36 기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8,286,587,645	35,171,555,144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071,204,200	10,129,038,960
유형자산의 취득	25,759,802,487	38,324,756,674
무형자산의 취득	2,147,198,754	96,849,900
종속기업 투자의 취득	3,412,800,000	7,939,459,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231,686,922)	23,833,367,159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24,579,805,013	157,731,163,749
단기차입금의 차입	124,579,805,013	150,231,163,749
장기차입금의 차입	-	7,5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0,811,491,935)	(133,897,796,590)
단기차입금의 상환	134,267,471,825	124,242,022,04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065,021,610	3,145,919,760
자기주식의 취득	-	1,997,608,040
배당금의 지급	4,478,998,500	4,512,246,75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 + II + III)	28,238,668,076	(33,300,668,076)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016,952,387	46,317,911,337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503,797)	(290,874)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1,255,620,463	13,016,952,387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구 분		제37기(2012사업년도)	제36기(2011사업년도)
주당배당금(원)	보통주	130	225
시가배당율(%)	보통주	1.1	1.9
배당금총액(백만원)		2,588	4,479

다.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7 기 2012. 12. 31 현재

제 36 기 2011.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7 기	제 36 기
자 산		
I. 유동자산	425,873,168,522	412,665,728,376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0,295,044,604	72,823,311,005
2. 단기금융상품	9,774,977,265	28,991,907,104
3. 매출채권	172,101,926,121	152,912,568,246
4. 기타채권	15,701,664,089	20,359,560,318
5. 기타금융자산	62,473,705	197,639,239
6. 재고자산	123,243,140,486	123,322,990,252
7. 기타자산	4,693,942,252	14,057,752,212
II. 비유동자산	244,911,890,167	225,090,432,146
1. 장기금융상품	1,500,000	1,500,000
2. 기타채권	4,244,221,489	5,931,751,507
3. 기타금융자산	17,904,436,665	16,439,357,493
4. 관계기업투자	1,516,266,018	188,623,318
5. 유형자산	199,086,681,363	182,328,746,657
6. 무형자산	10,448,954,255	8,580,187,837
7. 이연법인세자산	8,373,584,201	6,644,135,250
8. 기타자산	3,336,246,176	4,976,130,084
자 산 총 계	670,785,058,689	637,756,160,522
부 채		
I. 유동부채	328,213,311,065	321,381,704,874
1. 매입채무	201,030,918,082	174,286,328,245
2. 기타채무	17,185,414,954	18,273,020,710
3. 단기차입금	91,646,259,119	104,722,321,244
4. 유동성장기부채	4,963,784,814	4,788,382,254
5. 당기법인세부채	3,411,723,931	5,924,150,884
6. 총당부채	4,810,941,670	4,557,810,129
7. 기타금융부채	8,567,236	-
8. 기타부채	5,155,701,259	8,829,691,408
II. 비유동부채	33,570,880,031	41,416,878,521
1. 기타채무	1,994,578,021	7,873,229,908
2. 장기차입금	9,390,997,578	14,492,416,534
3. 퇴직급여부채	11,319,401,220	7,408,730,339
4. 총당부채	5,952,779,098	5,391,927,848
5. 기타부채	4,481,482,400	5,989,202,840
6. 이연법인세부채	431,641,714	261,371,052
부 채 총 계	361,784,191,096	362,798,583,395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09,000,867,593	274,957,577,127

과목	제 37 기	제 36 기
1. 자본금	10,027,215,000	10,027,215,000
2. 기타불입자본	2,237,091,320	2,237,091,320
3. 기타자본구성요소	(4,079,294,593)	546,138,279
4. 이익잉여금	300,815,855,866	262,147,132,528
II. 비지배지분		-
자 본 총 계	309,000,867,593	274,957,577,12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70,785,058,689	637,756,160,522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36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37 기	제 36 기
I. 매출액	1,017,676,959,921	937,716,034,191
II. 매출원가	864,160,536,972	806,233,805,511
III. 매출총이익	153,516,422,949	131,482,228,680
1. 판매비	20,079,261,457	21,151,978,239
2. 관리비	81,199,550,770	63,680,127,779
IV. 영업이익	52,237,610,722	46,650,122,662
1. 기타영업수익	20,322,282,761	21,522,014,304
2. 기타영업비용	17,797,021,458	12,599,743,932
3. 금융수익	6,610,667,926	6,380,831,685
4. 금융비용	5,957,445,525	8,568,495,783
5. 관계기업투자손익	(707,505,575)	(251,505,470)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4,708,588,851	53,133,223,466
1. 법인세비용	9,415,266,486	11,076,432,465
VI. 연결당기순이익	45,293,322,365	42,056,791,001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이익	45,293,322,365	42,056,791,001
2. 비지배지분순이익	-	-
VII. 연결기타포괄이익	(6,771,033,399)	(7,365,373,784)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2,208,815,544	(6,740,370,390)
2. 보험수리적손실	(2,145,600,527)	(2,930,934,020)
3. 해외사업환산손익	(6,834,248,416)	2,305,930,626
VIII. 총포괄이익	38,522,288,966	34,691,417,217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8,522,288,966	34,691,417,217
2. 비지배지분	-	-
IX.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2,275원	2,100원

과목	제 37 기	제 36 기
2. 회석주당이익	2,275원	2,100원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36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2011. 1. 1	10,027,215,000	4,234,699,360	4,980,578,043	22
연차배당	-	-	-	(4
자기주식의 취득	-	(1,997,608,04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6,740,370,390)	
보험수리적손실	-	-	-	(;
해외사업환산이익	-	-	2,305,930,626	
연결당기순이익	-	-	-	4
2011. 12. 31	10,027,215,000	2,237,091,320	546,138,279	26
2012. 1. 1	10,027,215,000	2,237,091,320	546,138,279	26
연차배당	-	-	-	(4
자기주식의 취득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2,208,815,544	
보험수리적손실	-	-	-	(;
해외사업환산이익	-	-	(6,834,248,416)	
연결당기순이익	-	-	-	4
2012. 12. 31	10,027,215,000	2,237,091,320	(4,079,294,593)	30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7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제 36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7 기	제 36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144,303,894	(430,296,598)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99,243,481,578	12,037,736,761
(1) 연결당기순이익	45,293,322,365	42,056,791,001
(2) 조정	48,007,284,716	41,905,595,491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5,942,874,497	(71,924,649,731)
2. 이자의 수취	2,926,352,416	2,007,177,136
3. 이자의 지급	(3,352,138,617)	(3,491,502,272)

과 목	제 37 기	제 36 기
4. 배당금의 수취	368,329,200	304,800,000
5. 법인세의 지급	(12,041,720,683)	(11,288,508,22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124,337,122)	(84,995,175,08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8,938,492,510	36,507,022,18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7,503,202,484	17,990,962,17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103,561,428	5,567,391,100
유형자산의 처분	9,331,728,598	12,667,970,799
무형자산의 처분	-	81,818,181
정부보조금의 증가	-	198,879,93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7,062,829,632)	(121,502,197,267)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8,286,587,645	35,171,555,144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071,204,200	10,159,049,858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2,098,315,000	428,750,000
유형자산의 취득	62,287,265,002	75,160,668,551
무형자산의 취득	2,319,457,785	503,249,398
정부보조금의 감소	-	78,924,316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183,781,750)	31,970,707,56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58,918,572,423	186,885,918,914
단기차입금의 차입	152,694,512,477	179,300,410,236
장기차입금의 차입	6,081,904,946	7,500,000,000
기타	142,155,000	85,508,678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77,102,354,173)	(154,915,211,349)
단기차입금의 상환	167,617,382,217	143,354,270,24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4,145,959,354	4,937,194,136
장기차입금의 상환	766,248,480	-
자기주식의 취득	-	1,997,608,040
배당금의 지급	4,478,998,500	4,512,246,750
기타	93,765,622	113,892,183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I+II+III)	30,836,185,022	(53,454,764,118)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2,823,311,004	125,864,537,478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3,364,451,422)	413,537,64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0,295,044,604	72,823,311,005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⑥ 이하 동일</p> <p>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⑥ 이하 동일</p> <p>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상법 시행령 제30조 5항(정년 퇴임, 퇴직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서 제외) 반영</p>
<p>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 14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기업 현실 규모 반영</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기업 현실 규모 반영</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9 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이 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이사의 수 한도 명시
제 30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본 회사 이사 과반수가 반대하는 신규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이사 선임 절차 추가 설정
제 37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7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는 그 이사가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통지 문구 수정
제 41 조의2 (감사의 수와 선임)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 41 조의2 (감사의 수와 선임) ①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 한도 명시

※ 기타 참고사항

표준정관 변경 및 기업현실규모 반영임.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정길	1971.11.12	사내이사	본인	이사회
박정규	1973.04.30	사내이사	제	이사회
최순철	1953.03.02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박덕용	1953.11.20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홍성태	1971.01.13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5)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정길	세종공업(주) 부회장	고려대 경영대학원현대 자동차(주) 근무	없음
박정규	세종공업(주) 총괄사장	고려대 경영대학원	없음
최순철	세종공업(주) 사장	동경대 공대 현대자동차(주) 부사장	없음
박덕용	세종공업(주) 부사장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없음
홍성태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미국 미시간대학 기계공학 박사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2)	8(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억원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보수총액은 등기이사 8명의 보수만 한도승인 받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5억원	1.5억원